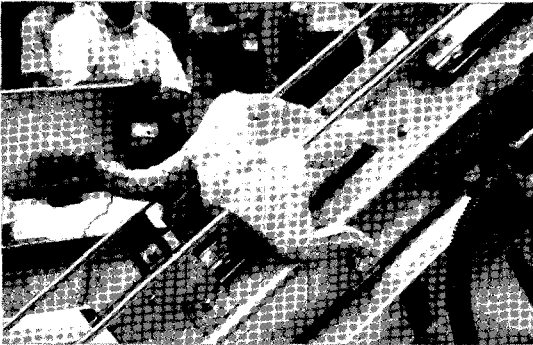


# 지구촌 양계뉴스

## ●●● 일본

시간당 1,500마리 닭가슴살 순식간에 분리



일본 한 기업이 닭에서 닭가슴살을 자동으로 분리해 주는 공정로봇을 개발, 전시해 온라인서 화제다.

지난 6월 15일 해외 언론에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마에카와(Mayekawa Manufacturing, <http://www.mayekawa.com>)사는 자동으로 닭에서 닭가슴살을 분리하는 기계를 FOOMA 재팬 2011 행사장에서 공개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시간당 1,500마리의 닭에서 닭가슴살을 분리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수작업에 비해 10배 이상 빠른 것이다. 특히 새로운 이미지 프로세싱 장치를 탑재, 개별 닭의 형태 특성을 파악해 자동으로 닭가슴살 추출 작업을 최적화한다.

회사 관계자는 자료에서 “각 닭의 가슴살 깊이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해 뼈에서 살을 분리해 낸다”고 설명했다.


닭날개 분리 장치를 옵션으로 한 이 제품의 가격은 4,500만엔 정도이다.

- <http://www.crunchgear.com/2011/06/15/video-super-efficient-chicken-breast-deboning-robot>

## ●●● 미쓰비시, 中 육가공시장 진출

일본 미쓰비시상사가 중국 최대 국영 식품 업체인 중량(中糧)그룹과 손잡고 중국에서 육가공 사업을 펼친다.

지난 6월 22일 니혼게이지이신문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달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17년까지 총 1,240억엔(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미쓰비시는 중량그룹 계열 육가공 부문 지주회사의 지분 33%를 확보한다.

양사는 소와 돼지 닭 등의 사육부터 도축·가공·판매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미쓰비시는 중량그룹에 가축 사료용 대두를 매년 300만~500만톤씩 공급할 계획이다. 

- 한국경제신문